



실리콘밸리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북가주 5 개 한인회 공동주최 76 주년 광복절 기념식

한인 Bay News · 2021-08-19 · 0 Comment

지난 8 월 14 일 실리콘밸리 한인회관 앞마당에서 열려
북가주 지역 한인단체 회원 등 한인 150 여 명 참석



광복절 기념식을 마치며 모든 참석자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북가주에 광복 76 주년을 축하하는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실리콘밸리, 새크라멘토, 몬트레이 등 북가주 지역 5개 한인회는 지난 3.1절 행사에 이어 76주년을 맞는 광복절 기념식도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실리콘밸리 한인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공동주최 덕분에 각 지역에서 모인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일제로부터 조국 해방을 맞았던 76년 전의 기쁨과 의미를 서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일현 무용단의 풍물놀이 '광복절의 울림'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졌다. 기념사는 행사를 준비한 실리콘밸리 한인회 박승남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상수 총영사, 김한일 김진덕·정경식 재단 대표,곽정연 SF 한인회장, 정흠 EB 한인회장, 최성우 SF 민주평통 회장의 기념사로 이어졌다.



76주년 광복절 기념식 참석자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박승남 실리콘밸리 한인회장이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함께 참석한 만큼 기념사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에게 감사인사를 먼저 전한 박승남 실리콘밸리 한인회장은 “36년간의 일본의 압제와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조국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과 혁신을 거치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미주 한인들도 세대를 초월해 조국 해방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서로 협력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자”고 환영사를 통해 역설했다.

윤상수 총영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독립을 위한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해외 동포들의 지원과 성원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민족의 저력이 이어져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총영사는 “초기 한국이 코로나로 어려울때 대규모 방역용품을 보내는 등 고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셨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매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총영사는 한국의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지만 올해는 한국의 광복절보다 북가주 기념식이 먼저 열리며 별도의 기념사를 한인들에게 전했다.



윤상수 SF 총영사가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민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김한일 대표. 김진덕·정경식 재단 김한일 대표는 이민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국을 떠나 멀리 타향에서 고되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은 일제로부터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은 변함이 없으셨다”며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버셨지만 독립자금으로 내놓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일 대표는 “북가주 한인들은 ‘독도 이름 찾기 캠페인’은 물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위안부 기림비’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시는 등 지금도 선조들의 조국애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한민족의 자긍심과 조국 사랑의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곽정연 회장도 “광복절은 한민족의 긍지와 정체성을 가슴에 다시 새기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정흠 회장도 “100여 년전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 강력한 민족으로 거듭나야 하며,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복절 기념사를 전하는 곽정연 SF 한인회장.



정흠 이스트베이 한인회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최성우 SF 민주평통 회장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말아야 한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휴전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 통일의 중요성을 전했다.

박승남, 곽정연, 정흠 회장 등 한인회장들은 입을 모아 북가주 지역 5개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광복절 행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 한인커뮤니티가 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최성우 SF 민주평통 회장이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기념사에 이어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폴라 로씨가 섹소폰으로 ‘넬라 판타지아’의 선율을 연주했으며, 실리콘밸리 한인회 합창단이 오케스트라단의 반중에 맞춰 ‘선구자’, ‘홀로아리랑’ 등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곡들을 불렀으며, 참석자들과 다함께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기도 했다.

행사는 고도준 6.25 참전국가유공자 미주총연 회장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이 다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됐다.



기념식에 앞서 선보인 김일현 무용단의 풍물놀이 '광복절의 울림' 공연 모습.



기념식 후 진행된 축하공연에서 폴라 로씨가 색소폰으로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합창단이 실리콘밸리 한인회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선구자'를 합창하고 있다. 제 76 주년 북가주 지역 광복절 기념식에는 한인회는 물론 SF 민주평통,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북가주지회, 유엔피스코, 월남전참전전우회 등 한인단체 회원과 관계자 등 150 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광복절 기념식에는 미주 한인 봉사단체인 화랑 청소년재단 실리콘밸리 지부 소속 학생들이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행사가 됐다. 화랑 소속 학생들은 봉사단체 이름에 걸맞게 기념식을 위해 텐트를 치고 책상을 날랐으며 의자를 설치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화랑 소속 박로빈 학생은 “아직 코로나바이러스가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해 많은 한인들이 함께 모여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스트베이 한인회 정흠 회장도 기념사에 이어 ‘화랑’ 소속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국의 언어인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한인들이 실리콘밸리 한인회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현포 새크라멘토 한인회장과 이문 몬트레이 한인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문 회장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축사를 보내왔고, 조현포 회장은 새크라멘토에서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개최했다. 조 회장은 새크라멘토 한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조국 해방을 기념할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독립만세

제76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일시 2021년 8월 14일(토), 오전 11:00

장소 실리콘밸리한인회관

3707 Williams Rd, San Jose, CA 95117

공동주최



실리콘밸리 한인회
Silicon Valley Korean American Federation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
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of San Francisco & Bay Area



이스트베이 한인회
Oakland-East Bay Ko. Am. Association



몬트레이 한인회
Monterey Korean Community Center



새크라멘토 한인회
KO. AM. Community Assn. Of Sacramento

협찬 및 후원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 김진덕 정경식재단 / 산타클라라 한미 노인봉사회
6.25 참전 국가유공자 미주총연합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 북서부지회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 실리콘밸리 월남참전 전우회 / 민주평통
유엔피스코 / 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 / 무봉리 순대국 / 동순원

제76주년 광복절 환영사



박승남
실리온밸리한인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실리온밸리 한인회 회장 박 승남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을 경축하는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계약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는 행사라 그 의미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한인 커뮤니티의 부단한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5개 한인회 연합 기념식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각지역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SF총영사님, 김한일회장, 지역단체장님들 이하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이게 보면 과거36년간의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었던 1945년 8월15일이 어느덧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치고 분단의 아픔을 안은 채 우리의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과 혁신을 통해 오늘의 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리온밸리 한인회는 후세들에게 8.15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성장하여 받은 혜택을 커뮤니티에 환원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광복을 넘어서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처한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동포사회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진한 동포애를 느끼는 시간으로 승화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한인 동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4일

실리온밸리 한인회 회장 박승남

제76주년 광복절 식 순

사회 : 최 창 익 수석부회장, 실리온밸리 한인회
MC : Senior Vice President Lion Choi, SVKAF

광복절의 율령 : 풍물놀이
김일현춤 아카데미 / 씨니어춤 아카데미

개막선언 : 사회자
국민의례 : 다 같이
애국가, 미국 국가 : 실리온밸리 한인회 합창단, 오케스트라, 키보드
묵 념 : 다 같이
환영사 : 박 승 남 실리온밸리한인회장
기념사 : 윤 상 수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김 한 일 김진덕 정경식 재단
곽 정 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정 흥 올랜랜드 이스트베이 한인회장
최 성 우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공연 : 섹스폰 연주 폴라 로 "Nella Fantasia"
실리온밸리 한인회 합창단, 실리온밸리 한인회 오케스트라
"선 구자, 홀로아리랑, 광복절"

귀 빈 소개 : 사회자

만 세 삼 창 : 고 도 준

폐 막 선언 : 사회자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제76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2021. 8.14 토요일 실리콘밸리 한인회관

대한독립만세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상수 총영사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광복 76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며, 북가주 동포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선열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으며, 함께 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서 북가주 동포 한분한분이 고국의 독립을 위해 몸살을 모아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고, 대한민국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광복후 76년 동안 한국은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금년도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단 기간 동시에 이룩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전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의 문화와 예술은 이제 세계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의 도전속에서 한국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전기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선두그룹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독립을 위한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함께, 오늘 이곳에 와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해외 동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이 없이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지력이 이어져서 우리는 코로나-19의 극복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한반도의 평화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년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북가주 지역을 포함한 한인동포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하여 한인동포들의 생활의 타진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포사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음식, 방역용품을 전달하고, 실시간 정보제공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초기 한국의 코로나 상황 이 어려웠을 때에는, 북가주 한인 동포사회가 대규모 방역용품을 전달하는 등 고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5개 한인회 관계자분들과 귀중한 시간내어 참석하여 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14일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윤상수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사



김한일 박사
Dr. Jonathan H. Kim
감리대 정경식 재단 대표

안녕하세요, 김진덕 정경식 재단 대표 김한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조국을 되찾았다는 일념으로 일제의 폭압에 맞서 옥속까지 버치신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특히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조국과 수만의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들의 이런 선조들께서는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셨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곳입니다.

장인환, 전명훈 의사께서는 일제의 알잡이로 한인들의 공분을 샀던 미립 스티븐스를 처단하셨고, 이 의거는 약 1년 만 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하신 공립협회와 대한민국민회는 미주 한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심점으로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는 등 큰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종립 선생과 노백린 장군께서 북가주에 설립하셨던 '월로우스 비행학교'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무장투쟁의 일환으로 한인 조종사를 양성했던 곳입니다. 최근 미주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재조명되며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이자 항공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기념화 사업이 추진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랑스런 우리 선조들의 활동은 지금 우리 가슴속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2차대전 당시 저행했던 '일본군 위안부'를 알리는 일에 북가주 한인들이 하나되어 적극 나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도 이름 지키기 캠페인에 수 만 여명이 발맞고 나서셨으며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어민아부뒤 이르 신까지 누굴 할 것 없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년전 오늘 서울 남산에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의 정신을 잇는 '정의의 위안 연대' 기림비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오늘,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후세들에게도 전해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저희 재단도 북가주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에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4일

김진덕 정경식 재단 대표 김한일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박정연입니다.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COVID를 이기며 동료 여러분을 건강히 뵙게 돼서 기쁜 마음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광복절행사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우리 민족의 일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같이 나누게

힘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민족의 긍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박정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회장

북가주 재미동포들의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이 미국 생활에서 여러분께 주어진 생활에 도전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광복절의 의미는 우리들한테 축제날이거나와 우리 후세들에게 세계 속에서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발전과 코로나 시대에 전승을 서로 약속하면서 약동하는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광복절의 의미는 우리 한민족의

긍지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키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발전과 도전의 생활로서 이어가는 우리 민족들과 우리끼리의 일이라는 끈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격려하며 배려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이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4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회장 박정연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사



정흥

이스트베이한인회 회장

천여하는 북가주 동료 여러분, 올해 2021년은 8.15 해방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 함박으로부터 해방된 온 민족이 기뻐야 할 날이요, 하나, 너무나도 많은 우리 민족이 압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다시 생각을 해야 하니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영장초 받지 않았다면 독립투쟁도 필요 없고 그 많은 독립투사들이 복수를 잃을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100여 년 전에 한반도에는 외세 열강들이 대한제국의 국권과 이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일본에서부터,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등 말이죠, 그 열강들의 싸움에서 승자가 일본이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시대에 맞추어 개방을 하지 않은 어려서는 위정자들 때문에 일찍 개방해서 근대화한 일본의 제국주의 군수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35년간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당한 것입니다. 이 식민지 기간 동안 일이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고 굴욕적인 역사를 안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6년간 갖가지 경제발전이 진행 하여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엄청난 성장을 거두어 냈습니다.

스마트 폰, 평면 TV 메모리 칩 시장 점유율 세 개 1위, 국민 숫자 대비 가장 많은 특허 신청을 하는 나라, 전체 국민생산의 가장 높은 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첨단과학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일등국이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100여 년 전의 뼈 아픈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일제 강점기와 같은 암흑의 시대가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일본이만 나라 자체를 미워하는 것 또는 일본인을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담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감정에 쫓리지 말고 더 좋은 기술력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놓으십시오. 그럼 불매운동 안 해도 우리나라의 제품을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너도나도 살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첨단 핵심기술이 힘입니다. 컴퓨터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데 컴퓨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CPU (Central Processing Unit)는 누가 생산을 합니까, Intel과 AMD 두 회사입니다. 두 회사 다 미국 회사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강국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배달민족은 이 세상 어느 곳지 살면서 교육을 혼혈을 다하고 통역인간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인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이제 양육만이 우리 배달민족이 타향에서 땀땀하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여 뼈까지 아픈 과거이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의 잘못된 점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외세의 침략에 당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민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북가주 동료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고 참고 이겨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14일

이스트베이 한인회 회장 정흥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사



이문
몬트레이 한인회장

존경하는 북가주에 거주하는 교민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15일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 있다는 그 자체에서 대한민국을 다시금 발전해 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선혈의 피와 땀으로 자주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거머져 나왔던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 영예롭게 우리의 주권을 다시 세게 되어 3만분의 소독을 주도하는 신진국에 진입하기까지는 무척 14만명의 항일 독립 투사들이 국내외에서 끈질기게 전개한 항일 독립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면서 자주 선진화 운동 민주화운동 시대의 많은 시련을 거쳐 당당한 신진국에 도달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이 한국 경제의 큰 도움이 되어 세계 6대 수출국이 되어서 국내외와 세계화의 대열에서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강내인 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민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루만의 여명의 빛을 말하는 날이 있어서는 감회가 무척 새롭게 느껴집니다. 모든 분들이 열려하시는 것 같이 역사는 풀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존엄성과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민의 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단하루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전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로 무너진 교민의 화합의 장과 대한민국의 명회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4일

몬트레이 한인회 회장 이문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사



최성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SF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 최성우입니다.

오늘은 815광복 76주년맞이하날. 우리 선조들이 느꼈을 76년전 그날의 감격을 여러분들과 같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광복을 기념하는 이유는 광복이전 36년간의 불행했던 역사가 다시는 한반도에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 늦기전에 한반도에 휴전을 종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멈춘지 68년 지났지만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 이기에 불안정한 정전 체계에서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립과 긴장으로 안보불안과 전쟁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전쟁공포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종전선언 촉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측은 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했었고, 2018.6.12.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지만, 정작 남북 당사국들은 지금이라도 종전을 선언하고 싶어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림물이 되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특히 미국에 사시는 한인동포 여러분들은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 투표의 힘으로 종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여론을 확산하여 주류사회 정치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미국을 움직이고 종전을 앞당기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멀타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서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박승남 한인회장님을 비롯 준비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SF협의회 회장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제76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2021 8.14 토요일 실리콘밸리 한인회관

대한독립만세

6.25 참전 국가유공자 미주총연합회
고도준 회장

대한민국 6.25참전용사 유공자회
유재정 회장

유엔피스코
정승덕 회장

실리콘밸리 태권도 총본부
남중국 회장

정치력 신장 위원회
신민호 회장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정순자 회장

KOWIN
박성희 회장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
방호열 회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북서부지회
남중대 회장

실리콘밸리 월남참전 전우회
박인식회장

실리콘밸리 한인회 합창단
강대형 단장

산타클라라 노인회 합창단
최경수 단장

Defense Language Institute
Korean School Professor.
Hwang Kate
Kim Youngae
Laxton Jeonghui

광복회 SF 지회 USA
윤행자 지회장

신사임당재단
박은주 이사장

실리콘밸리 CBMC
데이비드 양 회장

실리콘밸리 체육회
마이클 손 회장

실리콘밸리 태권도협회
Lion Changik Choi 회장

외대 GCEO 원우회
실비아 리 회장

화랑청소년재단
Kevin Kang
실리콘밸리 학생회장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서울 남산 위안부 기림비 설립 2주년 기념

8월 10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중심 거리에
'위안부 기림비'를 알리는 배너가 설치되었습니다.

